

방글라데시 니트 협회의 방일 미션

-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

방글라데시(Bangladesh)의 니트 업계는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방글라데시 니트 제품 제조업 수출업 협회(Bangladesh knit 製品 製造業 輸出業 協會)의 비즈니스 미션은 2009년 가을에 오사카에서 일본 섬유 업계의 관계 단체 및 유력 기업을 방문하였다.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 2009년 7월의 도쿄 방문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일본 시장을 더욱 상세하게 조사하면서 2009년 11월에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되는 제 5회 방글라데시 니트 전시회를 안내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구주로 니트 제품을 공급해온 섬유 산업의 기반과 후발 개발도 상국(後發開發 途上國 : 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 특혜 관세(特惠 關稅)를 활용할 수 있는 코스트 메리트(cost merit)와 같은, 방글라데시 니트 업계의 유리한 면을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시의 니트 제품은 2008년/2009년도(2008년 7월~2009년 6월)에 수출 품목의 41.3%를 차지하였다. 금액으로는 64억 2,900만 달러에 이르며, 중국, 터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셋째 가는 수출 대국이다.

이 정도로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니트 제품은 일본 섬유 수입 조합에 의하면 12억 3,200만 엔(2008년 1 ~ 12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2009년에는 1 ~ 6월의 상반기에 이미 2008년 1년 수입 실적을 웃도는 16억 2,800만 엔에 이르러, 2008년 동기와 비교하면 2.8배로 늘고 있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방일 미션(訪日 mission)은 오사카의 일본 섬유 수입 조합을 방문하고, 일본 시장으로의 니트 제품 수출을 크게 늘리기 위하여 상사(商社)의 제품 OEM 비즈니스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아시아 위원회’의 멤버(member)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일본의 센이 뉴스(纖維 news) 본사를 방문하여 회담하였다.♣